

2025
 고2 문학
 천재(정)

2025 고2 문학 천재(정) | 2(1)(3) 유자소전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유자소전」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유자소전」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출제돼.

1. 유자의 인물됨에 대해 묻는 문제
2. 전(傳) 양식을 계승한 서술 구조에 대해 묻는 문제
3. 방언과 비속어 표현의 효과에 대해 묻는 문제
4. 작품에 나타난 판소리 사설 문체의 효과에 대해 묻는 문제



유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래 내용 보고 판단해 봐.

- ① 말재주가 좋고 비범하여 주변 인물들에게 선명한 족적을 남김.
- ② 스스로 갖추어진 줯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고수함.
- ③ 사고를 낸 운전수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도움.
- ④ 봉변을 당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방법을 고안하여 상황에 대처함.



오오, 알겠습니다. 전(傳) 양식을 계승한 서술 구조라는 게 무슨 소리죠?

아래 표를 참고하도록 해.

	전통적 전(傳) 양식의 서술 구조	「유자소전」의 서술 구조
인정 기술	출생과 가계에 대해 기술함.	출생과 성장 과정, 품성에 대해 서술함.
행적	인물의 삶을 보여주는 삽화를 나열함.	어린 시절부터 장년까지 유자의 성품을 보여 주는 삽화들을 제시함.
논찬	인물의 삶에 대해 평가함.	유자의 사망 후 '이제 찬한다'고 하며 유자에 대한 주변 인물들과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함.



AI 직전 보강 확인



선생님. 「유자소전」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유자소전」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출제돼.

1. 유자의 인물됨에 대해 묻는 문제
2. 전(傳) 양식을 계승한 서술 구조에 대해 묻는 문제
3. 방언과 비속어 표현의 효과에 대해 묻는 문제
4. 작품에 나타난 판소리 사설 문체의 효과에 대해 묻는 문제



유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래 내용 보고 판단해 봐.

- ① _____가 좋고 _____하여 주변 인물들에게 선명한 족적을 남김.
- ② 스스로 갖추어진 _____와 나뉠것 이루어진 _____으로 _____ 있는 태도를 고수함.
- ③ 사고를 낸 운전수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고 자신의 _____를 털어 도움.
- ④ 봉변을 당하지 않고 _____를 처리할 방법을 고안하여 _____에 대처함.



오오, 알겠습니다. 전(傳) 양식을 계승한 서술 구조라는 게 무슨 소리죠?

아래 표를 참고하도록 해.

	전통적 전(傳) 양식의 서술 구조	「유자소전」의 서술 구조
인정 기술	출생과 _____에 대해 기술함.	출생과 _____과정, _____에 대해 서술함.
행적	인물의 삶을 보여주는 _____를 나열함.	어린 시절부터 장년까지 유자의 성품을 보여 주는 _____들을 제시함.
논찬	인물의 삶에 대해 _____함.	유자의 사망 후 '이제 찬한다'고 하며 유자에 대한 주변 인물들과 서술자의 _____를 제시함.



2025
고2 문학
천재(정)

2025 고2 문학 천재(정) | 2(1)(3) 유자소전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한 친구(유재필)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점이 없음. **인물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제물에**(저 혼자 스스로의 바람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사 **허름송이**(일을 참되고 미더운 데가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는 아니었다.]([]: 한 친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주인공 유자에 대한 요약적 평가-평범한 가운데 비범함이 있는 인물)

[그의 이름은 **유재필(兪載弼)**(작품의 주인공인 유자)이다. 1941년 흥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솜기**(활발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운)로 또래에서 **별종맞고**(말이나 하는 짓이 아주 별스럽다.)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비색한**(운수가 꼭 막하다.) 가운데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히 **숙성하고**(나이에 비하여 지각이나 발육이 빠르고), 청년 시절은 자못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서서는 숙절없이 **노성 하였으니**(많은 경험을 쌓아 세상일에 익숙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유재필에 대한 간단한 약력 및 소개. **'서술자가 인물의 성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두렵하고 썩밭에서 우뚝하였다.(유자의 존재감이 어디에서나 두드러짐-군계일학(群鷄一鶴))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유자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곧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음한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뜻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자기의 주장이 있는 의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없이 나대어서 남을 폐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유자가 그릇된 것으로 여기는 행동과 그러한 사람①)는 반드시 장마에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분수없이 남을 제치거나 밝고 일어서서 선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유자가 그릇된 것으로 여기는 행동과 그러한 사람②)는 **《삼국지》에서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여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 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중국의 역사 소설인 《삼국지(삼국지연의)》에는 중심인물로 '유비', '관우', '장비'가 등장하며 그들의 의리가 강조된다. '조조'는 그들과 대립하기 때문에, 독자는 조조가 망하기를 기다리며 책을 읽게 된다. 이 부분은 그러한 상황에 빗대어 유자가 '분수없이 남을 제치거나 밝고 일어서서 선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를 매우 미워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솜지게 말하여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몇몇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유자가 그릇된 것으로 여기는 행동과 그러한 사람③)가 있으면, **마치 말만 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 데에 힘입어 그날로 이자 돈을 놓는 매물스러운 구두쇠를 보듯이**(다 큰 딸을 돈을 받고 서울로 보내고 나서 그 돈으로 이자돈을 놓는 구두쇠를 보는 것처럼 몹시 싫어한다는 의미. **'유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대상을 물질적 풍요에 집착하는 딸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으레 가래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 터이었다.

그의 됨됨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체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인물의 성격에 대한 직접 제시)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마음이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성격)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짐짓 저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아닌 **특립독행(特立獨行)**(세속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믿는 바를 행함)의 돌출이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본 연후에**

야 즐거움을 누린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난 부분으로 유자의 인품을 알 수 있음. **‘인물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인용한 표현으로 유자의 어진 인품이 드러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라고 말한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이간감? 나 유가여.”

그가 내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던 첫마디였다.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兪子)였다.(서술자는 친구를 두고 ‘유’가 아닌 ‘유자’라고 말하면서 친구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냄. **서술자가 유재필을 ‘유자’라고 말하는 의도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 유자의 출생과 인품 소개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담과 불임성으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재무부장관으로 출세하기까지 하는 어느 정치인의 밑에서 일한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되는데, 점술인 행세를 하며 군 생활을 편하게 한다. 제대한 뒤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상경(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옴)**하여 재벌 **총수**(큰 조직체나 집단의 우두머리)의 승용차 운전수가 된 유자는,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집 안에 황금 불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아니꼽게 여긴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림의 노선 상무로 좌천**(회사 내 차량의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함)되는데 그는 한마디의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한 사리 분별력과 특유의 응통성을 발휘하여 말썽 많은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 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운전 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남.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뚜렷했던 유자는 운전 윤리에 대해서도 투철한 주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음)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림 내의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뜻대가 있고 사리분별이 바른 유자의 면모. **‘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뚜렷하고 뜻대 있는 유자의 면모가 드러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췌(흔히, 곤잘)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덩이 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이 셋방살이를 하는**(가난한 처지에 있는 운전수들) **축(같은 무리나 또래로 구분한 사람들)**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정규 운전수가 아닌, 대타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유자의 마음가짐을 보여 줌)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별이가 시답지 않아 결혼도 못 한 채 늙고 병든 홀어미와 단칸 셋방을 살고 있거나, 여편네가 집을 나가 버려 어린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 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스페어 운전수의 어려운 가정 형편, 힘겨운 삶을 보여 줌)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레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유자의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씨가 나타남)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 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를 두 포대 팔아 주고, 그리고 연탄을 백 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여탈 수 있는 한계였다.]([]: 자신의 사비(私備)를 들여서라도 그들을 돕는 유자의 모습을 통해 기업에서 고용하고도 돌보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매정한 현실, 그리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돕는 데에 망설임이 없었던 유자의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 줌)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 가게에서 연탄 백 장을 지게로 져 올려 비에 안 젖게 쌀아 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반찬거리가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연계 작품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업동 혹은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성에꽃」

「유자_____」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유자소전」의 ‘유자’는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는’ 인물이며 「성에꽃」의 화자 역시 버스의 창문에 맺힌 성에꽃을 통해 ‘처녀 총각 아이 어른’의 숨결과 삶을 공감한다.
- 「유자소전」의 ‘유자’는 ‘남을 폐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에게 반감을 보이는 것처럼 불의에 저항하는 모습이 있으나 「성에꽃」의 화자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

2025
고2 문학
천재(정)

고2 문학 천재(정) | 2(1)(3) 유자소전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으로 보기에는 _____ 점이 없음. **인물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제물에**(저 혼자 스스로의 _____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사 **허름송이**(일을 _____ 미더운 데가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_____ 이르는 말)는 아니었다.](한 _____에 대한 간단한 _____, 주인공 유자에 대한 요약적 평가 _____한 가운데 _____함이 있는 인물)

[그의 이름은 **유재필(兪載弼)**(작품의 주인공인 _____)이다.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솃기**(활발하여 _____ 않는 기운)로 또래에서 **별종맞고**(_____이나 하는 짓이 아주 _____)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비색한**(_____가 꼭 막하다.) 가운데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히 **숙성하고**(_____에 비하여 지각이나 발육이 빠르고), 청년 시절은 자못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서서는 숙절없이 **노성하였으니**(많은 _____을 쌓아 _____에 익숙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_____에 대한 간단한 _____ 및 _____, **‘서술자가 인물의 성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썩밭에서 우뚝하였다.**(유자의 _____이 어디에서나 두드러짐- _____(群鷄一鶴))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유자의 성격을 _____으로 제시)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곧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음한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뜻대와 나뉠것 이루어진 **주견**(자기의 _____이 있는 _____)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없이 나대어서 남을 폐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유자가 그릇된 것으로 여기는 _____과 그러한 _____①)는 반드시 장마에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분수없이 남을 제치거나 밝고 일어서서 선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유자가 그릇된 것으로 여기는 _____과 그러한 사람②)는 《삼국지》에서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여 매양 속으로 밀줄을 그어 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중국의 역사 소설인 《삼국지(삼국지연의)》에는 중심인물로 ‘유비’, ‘관우’, ‘_____’가 등장하며 그들의 의리가 강조된다. ‘조조’는 _____과 _____하기 때문에, _____는 _____가 망하기를 기다리며 _____을 읽게 된다. 이 부분은 그러한 _____에 빚대어 _____가 ‘분수없이 남을 제치거나 밝고 일어서서 선불리 _____척하고 _____자’를 매우 _____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숫지게 말하여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뗏뗏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유자가 그 _____것으로 여기는 _____과 그러한 사람③)가 있으면, **마치 말만 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 데에 힘입어 그날로 이자 돈을 놓는 매물스러운 구두쇠를 보듯이**(다 큰 딸을 돈을 받고 서울로 보내고 나서 그 돈으로 이자돈을 놓는 구두쇠를 보는 것처럼 몹시 싫어한다는 의미. **‘유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대상을 물질적 풍요에 집착하는 딸에 빚대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으레 가래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 터이었다.

그의 됃됨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체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_____의 _____에 대한 _____제시)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마음이 _____하고 _____이 많은 성격)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짐짓

저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아닌 **특립독행(特立獨行)**(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를 행함)의 돌출이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본 언 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가 드러난 부분으로 의 을 알 수 있음. **‘인물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인용한 표현으로 유자의 어진 인품이 드러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라고 말한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이간감? 나 유가여.”

그가 내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던 첫마디였다.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兪子)였다.(는 친구를 두고 ‘유’가 아닌 ‘유자’라고 말하면서 에 대한 을 드러냄. 서술자가 유재필을 ‘유자’라고 말하는 의도에 대해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 유자의 과 소개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담과 불임성으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재무부장관으로 출세하기까지 하는 어느 정치인의 밑에서 일한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되는데, 점술인 행세를 하며 군 생활을 편하게 한다. 제대한 뒤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상경**(에서 로 올라옴)하여 재벌 **총수**(큰 조직체나 집단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된 유자는,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집 안에 황금 불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아니꼽게 여긴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룹의 노선 상무로 좌천**(회사 내 차량의 처리를 담당함)되는데 그는 한마디의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한 사리 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말썽 많은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 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운전 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드러남. 옳고 그름에 대한 이 뚜렷했던 유자는 윤리에 대해서도 투철한 주관을 가지고 들을 바라보았음)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가 있고 이 바른 유자의 면모. **‘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뚜렷하고 쫓대 있는 유자의 면모가 드러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쑤**(흔히,)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덩이 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이 셋방살이를 하는**(한 처지에 있는 운전수들) **축**(같은 나 로 구분한 사람들)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운전수가 아닌, 대타)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형편이 어려운 에 대한 의 마음가짐을 보여 줌)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답지 않아 결혼도 못 한 채 늙고 병든 홀어미와 단칸 셋방을 살고 있거나, 여편네가 집을 나가 버려 어린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 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스페어 의 어려운 가정 형편, 삶을 보여 줌)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레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유자의 하고 마음씨가 나타남)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 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를 두 포대 팔아 주고, 그리고 연탄을 백 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여탈 수 있는 한계였다.]([]: 자신의 (私備)를 들여서라도 그들을 돕는 의 모습을 통해 에서 하고도 돌보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한 현실, 그리고 자신이 를 보더라도 남을 돕는 데에 망설임이 없었던 유자의 하고 따뜻한 를 보여 줌)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 가게에서 연탄 백 장을 지게로 져 올려 비에 안 젖게 쌓아 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

연계 작품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업동 혹은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성에꽃」

「유자 _____ 비교하여 출제된 내용

- 「유자소전」의 ‘유자’는 ‘남의 아픔이 _____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는’ 인물이며 「성에꽃」의 화자 역시 버스의 창문에 맺힌 _____을 통해 ‘처녀 총각 아이 어른’의 숨결과 삶을 _____한다.
- 「유자소전」의 ‘유자’는 ‘남을 폐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에게 반감을 보이는 것처럼 _____에 저항하는 모습이 있으나 「성에꽃」의 화자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

2025
고2 문학
천재(정)

2025 고2 문학 천재(정) | 2(1)(3) 유자소전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제재 개관

갈래	단편 소설
성격	풍자적, 해학적, 사실적, 비판적
제재	유자(유재필)의 인생
주제	유자의 훌륭한 인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존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명(實名) 소설임. • ‘전(傳)’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전통을 계승함. •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비속어를 사용하여 풍자와 비판의 효과를 나타냄.

2. 유자의 인물됨

- ① 말재주가 좋고 비뚤하여 주변 인물들에게 선명한 족적을 남김.
- ② 스스로 갖추어진 **준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고수함.
- ③ 사고를 낸 운전수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도움.
- ④ **몽변**을 당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방법을 고안하여 상황에 **대처**함.

3. 전(傳) 양식을 계승한 서술 구조

	전통적 전(傳) 양식의 서술 구조	‘유자소전’의 서술 구조
인정 기술	출생과 가계에 대해 기술함.	출생과 성장 과정, 품성에 대해 서술함.
행적	인물의 삶을 보여주는 삽화를 나열함.	어린 시절부터 장년까지 유자의 성품 을 보여 주는 삽화 들을 제시함.
논찬	인물의 삶에 대해 평가함.	유자의 사망 후 ‘이제 찬한다’고 하며 유자에 대한 주변 인물들과 서술자의 평가 를 제시함.

4. 방언과 비속어 표현의 효과

- ① 토속적인 정감과 **사실성**, **현장감**을 획득함.
- ② ‘유자’의 **인정**이 많고 **순박**한 면모를 드러냄.
- ③ ‘유자’에 대해 독자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음.
- ④ 작품에 **해학적** 분위기를 더해 줌.

5.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 유형

-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
-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으스대**는 사람
-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웁고** 그림에 대해 **뻑뻑**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

TEST 1단계

1. 제재 개관

갈래	단편 소설
성격	<input type="checkbox"/> 자적, <input type="checkbox"/> 학적, <input type="checkbox"/> 실적, <input type="checkbox"/> 판적
제재	유자(유재필)의 인생
주제	유자의 훌륭한 <input type="checkbox"/> 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존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명(實名) 소설임. '전(傳)'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input type="checkbox"/>통을 계승함. <input type="checkbox"/>언을 사용하여 향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비<input type="checkbox"/>어를 사용하여 풍자와 비판의 효과를 나타냄.

2. 유자의 인물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말<input type="checkbox"/>주가 좋고 <input type="checkbox"/>범하여 주변 인물들에게 선명한 족적을 남김. ② 스스로 갖추어진 <input type="checkbox"/>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input type="checkbox"/>견으로 <input type="checkbox"/>피 있는 태도를 고수함. ③ 사고를 낸 운전수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고 자신의 주<input type="checkbox"/>니를 털어 도움. ④ <input type="checkbox"/>변을 당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방법을 고안하여 상황에 <input type="checkbox"/>처함.
--

3. 전(傳) 양식을 계승한 서술 구조

	전통적 전(傳) 양식의 서술 구조	'유자소전'의 서술 구조
인정 기술	<input type="checkbox"/> 생과 <input type="checkbox"/> 계에 대해 기술함.	<input type="checkbox"/> 생과 성장 과정, <input type="checkbox"/> 성에 대해 서술함.
행적	인물의 삶을 보여주는 <input type="checkbox"/> 화를 나열함.	어린 시절부터 장년까지 유자의 <input type="checkbox"/> 품을 보여주는 <input type="checkbox"/> 화들을 제시함.
논찬	인물의 삶에 대해 <input type="checkbox"/> 가함.	유자의 사망 후 '이제 찬한다'고 하며 유자에 대한 주변 인물들과 서술자의 <input type="checkbox"/> 가를 제시함.

4. 방언과 비속어 표현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input type="checkbox"/>속적인 정감과 <input type="checkbox"/>실성, <input type="checkbox"/>장감을 획득함. ② '유자'의 <input type="checkbox"/>정이 많고 <input type="checkbox"/>박한 면모를 드러냄. ③ '유자'에 대해 독자가 친<input type="checkbox"/>감을 느낄 수 있음. ④ 작품에 <input type="checkbox"/>학적 분위기를 더해 줌.

5.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input type="checkbox"/>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 •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으<input type="checkbox"/>대는 사람 • 주변의 <input type="checkbox"/>치를 살피며 옳고 그름에 대해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

TEST 2단계

1. 제재 개관

갈래	단편 소설
성격	표 조 적, 흥 흥 적, 사 사 적, 비 표 적
제재	유자(유재필)의 인생
주제	유자의 훌륭한 ○ 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조 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명(實名) 소설임. • '전(傳)'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조 트 을 계승함. • 비 ○ 을 사용하여 향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비 사 ○ 를 사용하여 풍자와 비판의 효과를 나타냄.

2. 유자의 인물됨

<p>① □ 조 조 가 좋고 비 비 하여 주변 인물들에게 선명한 족적을 남김.</p> <p>② 스스로 갖추어진 조 트 와 나름껏 이루어진 조 트 으로 조 표 있는 태도를 고수함.</p> <p>③ 사고를 낸 운전수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고 자신의 조 모 트 를 털어 도움.</p> <p>④ 비 비 을 당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방법을 고안하여 상황에 트 트 함.</p>
--

3. 전(傳) 양식을 계승한 서술 구조

	전통적 전(傳) 양식의 서술 구조	'유자소전'의 서술 구조
인정 기술	조 사 과 트 에 대해 기술함.	조 사 과 성장 과정, 표 사 에 대해 서술함.
행적	인물의 삶을 보여주는 사 흥 를 나열함.	어린 시절부터 장년까지 유자의 사 표 을 보여 주는 사 흥 들을 제시함.
논찬	인물의 삶에 대해 표 트 함.	유자의 사망 후 '이제 찬한다'고 하며 유자에 대한 주변 인물들과 서술자의 표 트 를 제시함.

4. 방언과 비속어 표현의 효과

<p>① 트 사 적인 정감과 사 사 성, 흥 조 감을 획득함.</p> <p>② '유자'의 ○ 조 이 많고 사 비 한 면모를 드러냄.</p> <p>③ '유자'에 대해 독자가 조 트 트 을 느낄 수 있음.</p> <p>④ 작품에 흥 흥 적 분위기를 더해 줌.</p>
--

5.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트 트 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 •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 사 트 트 사람 • 주변의 트 트 를 살피며 옳고 그름에 대해 뻑뻑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
--

TEST 4단계

1. 제재 개관

갈래	단편 소설
성격	___적, ___적, ___적, ___적
제재	유자(유재필)의 인생
주제	유자의 훌륭한 ___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___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명(實名) 소설임. • ‘전(傳)’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___을 계승함. • ___을 사용하여 향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___를 사용하여 풍자와 비판의 효과를 나타냄.

2. 유자의 인물됨

<p>① ___가 좋고 ___하여 주변 인물들에게 선명한 족적을 남김.</p> <p>② 스스로 갖추어진 ___와 나름껏 이루어진 ___으로 ___ 있는 태도를 고수함.</p> <p>③ 사고를 낸 운전수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고 자신의 ___를 털어 도움.</p> <p>④ ___을 당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방법을 고안하여 상황에 ___함.</p>

3. 전(傳) 양식을 계승한 서술 구조

	전통적 전(傳) 양식의 서술 구조	‘유자소전’의 서술 구조
인정 기술	___과 ___에 대해 기술함.	___과 성장 과정, ___에 대해 서술함.
행적	인물의 삶을 보여주는 ___를 나열함.	어린 시절부터 장년까지 유자의 ___을 보여 주는 ___들을 제시함.
논찬	인물의 삶에 대해 ___함.	유자의 사망 후 ‘이제 찬한다’고 하며 유자에 대한 주변 인물들과 서술자의 ___를 제시함.

4. 방언과 비속어 표현의 효과

<p>① ___적인 정감과 ___성, ___감을 획득함.</p> <p>② ‘유자’의 ___이 많고 ___한 면모를 드러냄.</p> <p>③ ‘유자’에 대해 독자가 ___을 느낄 수 있음.</p> <p>④ 작품에 ___적 분위기를 더해 줌.</p>

5.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___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 •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___ 사람 • 주변의 ___를 살피며 옳고 그름에 대해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
--

O / X 문제

【1~20】 「유자소전」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 방언과 비속어를 활용해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O / X)
2. 상세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 X)
3.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삽입하여 갈등의 발생 원인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O / X)
4. 서술자는 인물의 행위를 통해 부정적인 세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O / X)
5. 부조리한 상황에 내몰린 인간의 내면을 밀도 있게 묘사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O / X)
6. 문장을 장황하게 표현하는 문체를 사용하여 등장 인물의 특성과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 X)
7.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O / X)
8. 인물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인물의 분열된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O / X)
9. 구체적인 일화를 제시하여 인물의 특징과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O / X)
10. 방언을 사용하여 토속적인 정감과 사실성,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O / X)
11. 다양한 장면의 제시를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O / X)

12. 중심인물이 직접 사건을 전달하여 등장인물들에 대한 친근감을 강화하고 있다. (O / X)
13. 본받을 만한 인물의 삶을 제시하여 교훈을 주고자 한다. (O / X)
14. ‘전’의 양식을 차용(借用)하여 인물의 일생과 업적을 바탕으로 인물의 일대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O / X)
15. 의식의 흐름을 통해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묘사하고 있다. (O / X)
16.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시켜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O / X)
17. 각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한 평가를 서술하고 있다. (O / X)
18. 비유적 표현,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O / X)
19.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을 나열함으로써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O / X)
20. 실제 지명, 방언과 사투리 사용 등을 통해 현장감을 더해 주고 있으며 인물에 대한 친숙함을 더해 준다. (O / X)

- | | | | | | | | |
|-------|-------|-------|-------|-------|-------|-------|------|
| 1. O | 2. X | 3. X | 4. O | 5. X | 6. O | 7. X | 8. X |
| 9. O | 10. O | 11. X | 12. X | 13. O | 14. O | 15. X | |
| 16. X | 17. X | 18. O | 19. O | 20. O | | | |

2025
고2 문학
천재(정)

2025 고2 문학 천재(정) | 2(1)(3) 유자소전 복습 필기용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그러나 어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제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사 허름승이는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유재필(兪載弼)이다.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솜기로 또래에서 별뽕맛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비색한 가운데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히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자못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서서는 숙절없이 노성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썩밭에서 우뚝하였다.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곧고 굳은 위에 몸소 겪은 한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쫓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건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없이 나대어서 남을 폐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에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분수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선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는 《삼국지》에서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여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 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숫지게 말하여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뻗뻗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마치 말만 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 데에 힘입어 그날로 이자 돈을 놓는 매물스러운 구두쇠를 보듯